
정책참고자료

2017-14호



목 차



1	국민안전처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 전기사용 많고, 고온다습한 날씨, _____	4
	젖은 침수로 감전위험 높아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_____	6
3	기획재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_____	8
	회의 개최	
4	교육부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 머리 맞댄 선생님들 _____	11
	- 부산·울산·경남 권역 교사공동체 수업콘서트 개최 -	
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정보보호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_____	14
6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5대 궁에서 심쿵! 평창올림픽 궁궐콘서트 참가자 모집 _____	17
7	농림축산식품부	
	울여름엔 오감팡!팡! 즐거운 농촌여행 떠나요 _____	19
	-농식품부, 「2017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개최-	
8	환경부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참여 필요 _____	22

9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뭉쳤다’ - 제6기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하모니’출범 -	28
--	----

10 여성가족부

2017년 양성평등주간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29
--------------------------	----

11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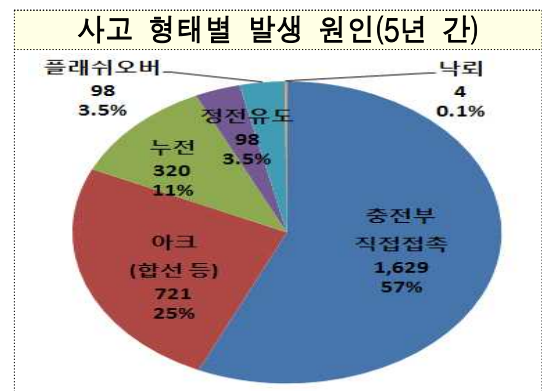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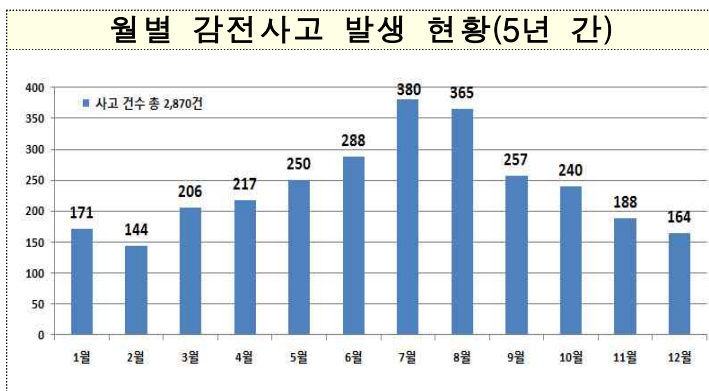
세상을 바꿀 공간정보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다	35
----------------------------	----

1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40
-----------------------------	----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 전기사용 많고, 고온다습한 날씨, 잦은 침수로 감전위험 높아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철 냉방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와 장마철 호우로 인해 감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1~2015년) 총 2,870건의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187명이 사망(연평균 37.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이 365건으로 여름철에 다른 계절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고 유형별로는 전력이 흐르는 충전부(전압이 걸려있는 부분)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가 57%(1,62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크* 발생 25%(721건), 누전 11%(32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아크 : 합선과 같은 유사한 현상으로 발생한 불꽃에 의해서 화재 및 화상 발생

- 충전부 접촉사고는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습한 날씨로 장갑이나 의류가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 주로 발생했다.

-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군포시 주택 개발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 작년 7월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주택에서 습한 날씨에 노후 옥외 인입선 교체 작업 중 감전되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 여름 장마철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전기 설비를 살펴보기 전에는 먼저 분전함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해야 하며, 전기기구를 수리할 때도 반드시 전원을 끄고 고무장갑이나 절연 장갑을 낀 상태에서 만져야 한다.
 - 만일 폭우로 인해 가옥의 일부가 침수되었다면 즉시 분전함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 또, 침수지역에 들어갈 때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물에 잠겼던 가전제품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국민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가로등과 신호등뿐만 아니라 입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문화재청과 강원도 양양군에 28일 각각 송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재결서의 송달은 지난 15일 중앙행심위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8조에 의해 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번 재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절차적 하자 판단) 절차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음

-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2명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국민행동의 참가단체(○○○○, △△△△)에서 이사장 등을 역임
- 문화재위원회 의결은 거수 또는 기명투표 방식이나 의결을 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실체적 하자 판단) 문화재청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을 함

- 이 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상충함
-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청구인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저감될 수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측면에만 치중한 채 그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요약서 참조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문화재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 정부는 7월 5일(수) 오전 8:3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7월 4일(화) 오전 9:40,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음

○ 오후 3:30,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하였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7.4일 주가는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 이후 약보합권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전일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소폭 상승하였음

* 7.4일 지표(전일대비): (코스피) Δ 0.6%, (원/달러) 0.3% 절하

○ 지난 밤 국제금융시장에서 美 독립기념일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가운데, 원/달러 NDF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

* 원/달러: (7.4일 한국 종가)1,150.6 → (7.4일 런던 NDF 종가)1,151.5 (0.08%절하)

CDS 프리미엄(bp): (7.3일)54 → (7.4일) 57(+3bp)

□ 과거 核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당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었음

□ 그러나, 최근 통상현안, 美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 참석자들은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와 對韓 투자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 머리 맞댄 선생님들

- 부산·울산·경남 권역 교사공동체 수업콘서트 개최 -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7.7.(금)부터 7.8.(토)까지 부산 농심 호텔에서 교사공동체 대표교사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부산·울산·경남 권역 수업콘서트'를 개최한다.

※ 행사일정표 [첨부1], 행사 사진 [첨부2] 참조

<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란? >

- ☞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으로 학습하는 교사들의 모임**으로, '17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전국의 **2,121개 22,478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학습공동체

- 이번 행사는 '17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6차례 권역별 수업콘서트 중 마지막으로, 교사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영화를 주제로 하는 수업,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 방법, 교사공동체 운영을 고민하는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업 활동의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수업콘서트는 '17년 하반기에도 6회 진행할 예정이다.
- 2016년 교사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남 임자고의 경우, 무기력에 빠진 섬 지역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교사들이 모여 「섬드리수업」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 지역사회와 특산물을 소개하는 단편 영화제를 실시하고, 학급 팟캐스트를 제작하여 서로 소통하였으며, 단편소설을 써서 출판까지 진행하고 임자도 관광 가이드북 제작 활동 등을 통해 수업의 모든 과정에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게 하였다.

- 교사들은 다양한 활동들이 교과와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테면, 작문 시간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미술 시간에 영화포스터를 제작하는 식이다.
- 입자고의 변화된 수업은 지역 언론에 다양하게 소개되었고,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높여 학력 향상은 물론, 높은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무엇보다 공동으로 학습하고 협력하는 수업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게 되었다.
- 교육부는 2016년부터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을 위해 수업 콘서트 외에도 교수·학습 자료 개발, 우수·공감 사례 공모전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첨부4]
- 또한 다양한 사례와 자료들은 ‘에듀넷- 티클리어’ 누리집(www. edunet.net)를 통해 전체 교사들에게 소개하여 교실 수업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실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공동체가 학교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추진 개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 및 상호 교류를 통한 공감과 소통 기회 확산

□ 추진 내용

- (방향)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활동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공동체 운영 사례 공유 및 수업 나눔을 통한 교수·학습 활동의 변화 모색
- (일시/장소) '17.07.07.(금) 15:30~07.08(토) 13:30/ 부산 농심호텔
- (대상) 권역 내 교사공동체 소속 교사 중 신청자 100명, KEDI 및 교육부 담당자 6명, 교사공동체 컨설턴트 및 강사 6명 등 총 112명
- (내용) 교사공동체 알기, 교사공동체 운영 공감 사례 및 수업 개선 사례 토크 콘서트, 교사밴드 공연, 교사공동체 운영 분임 토의
- (세부 일정)

구분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일차	15:30~16:00(30')	등록	분임 편성
	16:00~16:20(20')	개회식(국민의례, 인사말)	KEDI, 교육부
	16:20~16:50(30')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사업 안내	교육부
	16:50~17:20(30')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센터 안내	KEDI
	17:20~18:50(90')	석식	
	18:50~20:20(90')	교육과정과 교사공동체	정성식(이리동남초)
	20:30~22:00(90')	분임토의(교사공동체 경험공유)	정성식(이리동남초)
2일차	07:30~09:00(90')	조 식	
	09:00~10:30(90')	수업친구와 함께하는 성찰 중심의 수업나눔	손정웅(부산공업고)
	10:40~12:10(90')	미디어리터러시와 교사교육의 실제	차승민(창원광려초)
	12:10~12:30(20')	설문조사 및 폐회식	KEDI
	12:30~13:30(60')	중식 후 귀가	

□ 향후 일정

-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리더 워크숍: '17.9월 예정

미래부, 정보보호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 · 美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MoU 체결
- 7.5.(수)부터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참가 공고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내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이하 ‘KISA’), 미국의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사업 도모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업무협약을 체결(‘17.7월)하고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은 국내의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선진 자원을 현지에서 직접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정보보호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현지의 트렌드와 요구사항 반영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교육 및 멘토링, 현지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임원·투자자 대상 투자설명 기회, 정보보호 분야 잠재 고객 대상 데모데이 등 본 프로그램을 워싱턴DC, 세인트루이스, 덴버 등 미국 현지에서 약 6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또한, 참가 스타트업 별로 영문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전역에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공고 및 참가 접수는

KISA 홈페이지를 통해 '17.7.5.(수)부터 8.6.(일)까지이고,

- 심사는 서류·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서류심사는 KISA가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2배수(10개 기업)를 선정, 발표심사는 미국의 엑셀러레이터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 세일즈 마케팅 전략 등을 직접 평가하여 5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 지원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시제품(상용화 제품)을 보유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최대 2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 또한,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선발 기업이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국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며, “향후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 시장까지 확대 진출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운영지원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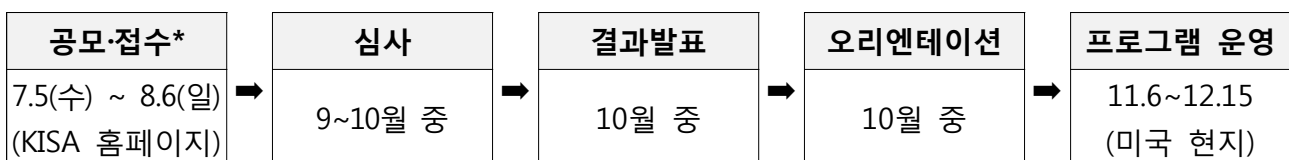
- 국내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공동 추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가할 국내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선발

□ 선발 내용

- (참가 자격)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 시제품이나 상용화제품을 보유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정보보호 스타트업
- (선발 분야) 정보·물리·융합보안 등 보안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 (선발 방법 및 규모)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10개)를 선정하고, 미국의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업체를 선발
- * 지원자격의 적합성, 제안서의 구현 가능성 등
- ** 제품의 시장 경쟁력, 세일즈·마케팅 전략, 위험관리 능력 등
- (선발 기준) 기술성, 창의성, 사업성에 대해 심사하고,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응모시 가점 부여

○ (추진일정)

< 전체 추진 일정(안) >



*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2차 공고 예정

서울 5대 궁에서 심쿵! 평창올림픽 궁궐콘서트 참가자 모집

- 경복궁, 덕수궁 등에서 펼쳐질 ‘심쿵심쿵 궁궐콘서트’ 공연 참가자 총 30개 팀 모집 -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경복궁 등 서울 5대 궁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오는 9월 23일(토)과 24일(일), 이틀간 서울 5대 궁에서 펼쳐지는 ‘심쿵심쿵 궁궐콘서트’에 참여할 음악 공연팀을 7월 6일(목)부터 25일(화)까지 모집한다.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서울 5대 궁에 설치된 총 10개의 무대에서 총 70회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궁별로 장르를 나눠 진행되는데 경복궁, 덕수궁에서는 퓨전국악, 재즈, 모던팝과 같은 대중적인 음악을, 창덕궁, 창경궁에서는 국악, 클래식, 월드 뮤직을, 경희궁에서는 서정적인 국악 공연을 펼친다.

*문화올림픽이란? (IOC, 「Cultural Olympiad Guide」)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서,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

참가 대상은 개인 및 단체(6인 이하) 음악예술인이며, 전통국악, 창작국악, 재즈, 클래식, 어쿠스틱밴드 등 장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음원, 영상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3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음악예술인은 행사 기간 중 1회, 30분 공연을 하게 되며, 공연료를 비롯해 음향, 악기 지원 및 공연 사진, 공연 영상 제공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및 패럴림픽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축제의 장으로서,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우리 대표 문화유산인 ‘궁’을 활용한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많은 예술가들이 음악을 통해 올림픽에 동참하고,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함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음악예술인들은 오는 7월 25일(화)까지 ‘심쿵심쿵 궁궐콘서트 추진단’ 전자우편(simkung2017@naver.com)으로 지원신청서와 두 곡 이상의 음원 및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누리집(www.arko.or.kr)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붙임 궁궐콘서트 사례

올여름엔 오감팡!팡! 즐거운 농촌여행 떠나요

-농식품부, 「2017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 개최-

《 주 요 내 용 》

- ◆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동아일보와 함께 7월 7일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를 포상하고,
 - 여름휴가철 도시민의 휴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 다섯 번째 맞는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을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
- ◆ 행사개요
 - (행사명) 2017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
 - (슬로건) : 
 -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동아일보사/한국농어촌공사
 - (일시 및 장소) 2017.7.7.(금) 13:00~17:00, 서울 청계광장
 -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회의원(홍문표의원), 동아일보 대표, 농업인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여행사 대표 등 100여명
 - (주요내용) 도농교류의 날 기념(유공자 포상 및 기념식), 농촌여름휴가 캠페인(선포식 및 퍼포먼스, 농촌관광 홍보관 운영, 농촌여행상품 판매 및 홍보, 이벤트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 승, 이하 공사) 및 동아일보사와 함께 2017년 7월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7년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산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5회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도시민이 여름휴가를 농촌에서 보내도록 농촌관광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도농교류 유공자 포상(31점)*을 시작으로,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선포식과 퍼포먼스로 이어질 예정이다.

* 훈장(개인1), 포장(개인1), 대통령(단체2, 마을1), 국무총리(단체3, 마을1, 개인1), 장관(21)

□ 무대행사장 전후로는 공동체험장, 정책홍보관, 체험존, 먹거리 부스 등 농촌관광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부스가 운영된다.

○ 공동체험장은 행사장 중앙에 배치하여 물총으로 허수아비 맞추기, 투호 던지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어 행사장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농촌 여름휴가 흥미도 유발할 예정이다.

○ 농촌관광 정책 홍보부스에서는 ‘농촌여행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며, 팜을 활용한 이벤트형 상품(연수·웨딩), 농촌관광 포털·SNS, 우수 농촌여행지 등 개인·단체·기업 등 고객별 맞춤형 농촌관광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올여름 농촌으로의 여름휴가를 장려하고 농촌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 또한 지역별 체험존에서는 전국 지자체 및 체험마을협의회가 제공하는 지역별 농촌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농촌체험휴양 마을에서 실제 운영 중인 농촌체험을 전통·웰빙·자연 3개 테마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 아울러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스케치 등 민간여행사가 행사에 참가하여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여행 코스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 농촌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색 수박 먹기, 전통음료 빨리 먹기, 허수아비 소원달기 등 재미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대형 전국 체험마을 지도와 허수아비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도 운영한다.
- 이외에도 감자전 등 전통음식과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농촌음식 나눔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즐거움도 배가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김 철 과장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농촌은 도시민에게 휴식의 장이자 힐링의 공간이며, 체험학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다가오는 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농촌에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즐거움을 만끽하며, 가족 간의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여름휴가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참여 필요

- ◇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전시회, 7월 6일부터 이틀 간 국회에서 개최
- ◇ 중금속,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방법 안내, 친환경 어린이용품 체험 등 선보여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송옥주·김삼화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 등과 함께 7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 첫날인 6일에는 기념행사로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어린이 환경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어린이 환경안전 실천 서약식'을 갖는다.

- 서약식에는 안병옥 환경부차관, 송옥주·김삼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전시회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이나 어린이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방법을 안내한다.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노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간(22년간) 추적조사·연구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도 소개한다.

-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 사업 등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홍보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와 어린이용품도 선보인다.
- 이밖에도 알레르기 반응검사, 미세먼지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에코백·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열린다.

□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관계자, 어린이용품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이 어린이 환경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1.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요.
2.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
3. 전시회 부스 구성.
4. 전문용어 설명. 끝.

- 목 적 :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최
- 일 시 : 2017. 7. 6(목) ~ 7(금), 10:00~18:00
 - ※ 기념행사(어린이 환경안전 서약식) : 7. 6(목) 14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 주최/주관 : 국회의원 홍영표·송옥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념식 일정
 - (참석자) 송옥주·김삼화 국회의원, 환경부차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어린이집총연합회장 등 약 15명
 - (행사내용) 축하, 어린이 환경안전 실천서약, 전시관람·체험 등

시 간		주요 내용
14:00~14:03	3′	• 내빈소개 및 개회
14:03~14:15	12′	• 인사말
14:15~14:30	15′	• 어린이 환경안전 서약 퍼포먼스
14:30~14:33	3′	• 기념촬영
14:33~14:45	12′	• 전시관람

※ 세부내용 추후 변동가능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일자 2017. 7. 6(목)~7(금)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 주최 | 국회의원 홍영표 · 송옥주, 환경부 | 주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번	주제	주요 전시내용
1	알레르기 피부단자검사	· 알레르기 질환 안내 · 알레르기 피부단자검사 ·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법 교육
2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중요성 안내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소개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 환경안전진단, 확인검사, 안심인증 등 관련 정책 소개 · 중금속 농도 간이측정 시연 · 친환경 건축자재 전시
4	어린이활동공간 석면관리	· 어린이집·학교 석면관리 실태 ·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 안내 · 석면 건축자재 현미경 관찰
5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건강나누리캠프 프로그램 소개 · 부채, 에코가방 등 만들기
6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자가관리 지원사업 등 관련 정책 소개 · 자가관리 우수기업 소개
7	친환경 어린이용품 체험공간	· 친환경 어린이용품, 가구, 바닥재 등으로 조성한 어린이방 체험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으로 정하는 것
- **어린이용품** : 어린이가 주로 사용 또는 접촉하는 제품으로, 장난감, 문구·완구,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을 말함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 태아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의 관계를 장기간 추적조사·연구하는 것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환발생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함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 도모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인증하는 제도 '16년까지 환경안심인증을 받은 시설은 882개소임
- * 석면건축이 아닌 시설 중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 공기질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고, 최근 3년 내에 관련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뭉쳤다

— 제6기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 ‘하모니’ 출범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박승규)은 7월 6일 오후 2시 공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강당에서 제 6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스 ‘하모니(harmony)’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 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확산 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도부터 대학생 서포터스를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오아시스 팀 등 총 15개 팀 71명이 제6기 ‘하모니’ 서포터스로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 이번에 서포터스가 된 숙명여대 한우정(21세) 학생은 “평소 장애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공단의 서포터스 활동이 작지만 튼튼한 씨앗이 되어 이 사회에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서포터스로서 자긍심을 갖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교육 과정에서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체험,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이 이뤄졌다.
- 제6기 ‘하모니’ 서포터스는 올해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SNS 전파, 거리캠페인, 장애인 고용관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2017년 양성평등주간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 7.1.~7.7. 양성평등주간, 전국에서 350여개 기념행사 개최 -

- 7월 첫째 주(7.1.~7. 7.) ‘양성평등주간’ 을 맞아 17개 광역 시·도는 물론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까지 성평등 실현의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약속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 양성평등주간은 1996년 이래 운영돼 온 ‘여성주간’ 으로, 관련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 명칭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올해는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을 주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기념식, 강연, 문화행사 등이 전국 전역에서 350여 개 진행된다.
 -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7월 5일(수) 기념식과 더불어 ‘성평등 도시 함께 만들어요.’ 등 15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대전광역시는 7월 8일(토) 여성단체와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전 시민걷기 한마당’ 등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연다.
 - 강원도는 7월 7일(금)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 캠페인’,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 선언인 ‘히포시(He for She)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 성평등을 주제로 한 공연·전시 등 문화 행사도 다양하다.
 - 성평등 연극(부산, 6월 29일~ 7월 10일), 뮤지컬 콘서트(인천, 7월 5일), 단편 여성영화(제주, 7월 7일)와 ‘어제와 오늘 여성사전’ (울산, 7월 3일~7일)

등이 지역민들을 찾아간다.

- 이 밖에도 성평등 정책포럼(울산, 7월 13일), 여성정치 활성화 토론회 · 정책 간담회 · 토크콘서트(경기도, 7~9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가 개최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오는 7월 7일(금)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여성 · 시민단체, 기업인,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평등 진흥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여성과 남성, 기업 등 성평등 주체들이 함께하는 ‘성평등 실천약속’ 발표, 성평등에 앞장서는 각계 남성모임인 ‘성평등 보이스(Voice)’ 출범식 등이 진행된다.

【붙임】 2017년 전국 지자체 양성평등주간 행사 현황

□ 기념식 개최 일정

7.1(토)	7.3(월)	7.4(화)	7.5(수)	7.6(목)	7.7(금)	기 타
서울 제주	대전 세종	울산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남	충북, 전북 경북	부산	대구(6.30) 강원(7.12) 전남(7.13)

□ 사·도별 기념행사 현황

기관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명)	주요내용
서울 특별시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1(토) 10:00 광화문 중앙광장	시민 3,000여명	· 기념식, 여성상 시상, 기념공연 등
부산 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7.7(금) 10:30 시청 국제회의장	여성지도자, 수상자, 시민 350명	· 기념식(유공자시상, 특강 등)
	가족사랑 및 양성평등실천 건강걷기대회	7.1(토) 09:00 어린이대공원	시민 3,000명	· 건강걷기대회, 시민한마당대회, 사회캠페인 등
	양성평등 연극상영	6.26(월)~7.10(월)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시민 1,600명	· 양성평등연극 '좋은여자, 나쁜여자' 공연(8회)
대구 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30(금) 14:00 엑스코	단체, 시민 등 1,500명	· 기념식(여성대상 및 유공자 표창, 주제영상, 기념공연 등)
	2017여성UP 엑스포	6.30(금)~7.1(토) 엑스코	시장,시의원, 여성단체회원, 지역주민 등 20,000명	· 여성행복박람회, 포럼, 특강, 토크쇼, 전시, 시연회, 부대행사 등
인천 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대회	7.5(수) 13:30 인천문화예술회관	여성단체 회원, 시민 1,300명	· 기념식, 뮤지컬콘서트, 양성평등공모전 우수작 전시, 런치콘서트 등 부대행사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5(수) 14:00 시청	시장, 여성단체 등 700명	· 기념식(식전공연, 기념사, 유공자 포상), 문화행사(체험, 포럼, 전시, 영화제) 등

기관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명)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3(월) 14:30 시청 대강당	여성단체 및 시민 500여명	· 식전행사, 기념식, 여성대회 등
	성평등주간기념 대전시민걷기 한마당	7.8(토) 10:00 엑스포시민공원	여성단체 및 시민 2,000여명	· 기념식, 축하공연, 걷기한 마당, 식전행사 등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7.4(화) 14:00 시청 대강당	시민 600여명	· 유공자표창, 기념사, 특강 및 장학금 전달 등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의식 확산프로젝트	6.15(목)~7.31(월)	시민	· 지면 및 온라인 캠페인 광고, 영상물 제작, 기획물 연재 등
	양성평등행복 나누기	7.4(화)~7.5(수) 시청 대회의실	시민 1,000명	· 취.창업관, 재능뽐내기, 재 능나누기
	정책포럼	7.13(목) 14:00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민 100명	· 주제발표(울산시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안) 및 토론 등
	성폭력예방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양 성평등인식개선 프로그램	6.19(월)~7.21(금) 학교 및 시청광장	학생 및 시민 2,400명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체험 부스
	21세기 여성단체 리더의 역할과 여 성리더십(토론회)	7.21(금) 16:00 울산MBC컨벤션	시민 300명	· 개회식, 발제 및 토론, 생 생토크 등
	그림으로 보는 여성의 삶	7.1(토)~7.7(금) GN 갤러리	시민 490명	· 개막식, 그림전시, 문화예 술 체험, '여성뿌리찾기'
	2017년 '어제와 오늘 여성사전(展)'	7.3(월)~7.7(금) 시청	시민 1,500명	· 여성생활사의 변천, 영화속 여성, 시대별 여성의 삶과 노동 등 주제별 전시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5.(수) 14:00 경기여성의 전당	도의원, 여성단체 유공자 등 500명	· 기념식, 특강, 공연행사
	토론회	7~9월 중	도의원, 여성단체 활동가, 도민 등 300명	· 여성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기관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명)	주요내용
	토크콘서트, 초청강연회 등	7~9월 중	도민 500명	· 정책간담회, 초청 강연회 , 정치참여 연극 등
강원도	제22회 강원양성평등대회	7.12(수) 11:00 강릉원주대학교	강원여성 등 1,000명	· 기념식, 유공자표창, 화합 행사 등
	강원여성생활사 발굴방안(가제)	7.7(금) 14:00 강원도여성가족 연구원	여성단체 및 도민, 공무원 등 100명	· 강원여성 생활사 발굴 의의와 방안에 관한 발표, 토론
	동일임금 캠페인	7.7(금)	여성단체지도자 및 회원, 도민, 공무원 등 150명	· 남성과 여성의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는 캠페인
	히포시캠페인 (He for She)	7.7(금)	여성단체지도자 및 회원, 도민, 공무원 등	· 성평등을 옹호하고 여성을 지지하는 남성선언
충청 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6.(목) 13:00 충북여성플라자	도민 300명	· 강연, 음악회, 기념식 및 시상식
충청 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5.(수) 10:00 천안시청	도민 등 1,000명	· 기념식(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등), 부스운영, 양성평등 강연 등
전라 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6.(목) 14:00 도청 공연장	도·시·군 단체대표 및 회원 등 1,000명	· 기념식, 시상식, 양성평등 포럼, 축하공연 등
전라 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13(목) 14:00 도청 김대중강당	도민 1,000명	· 식전공연, 특강, 유공자표 창, 퍼포먼스, 부대행사 등
경상 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7.6.(목) 14:00 도청 동락관	경북도민, 도내 대학생, 여성지도자 등 1,000명	· 기념식,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주제공연, 부대행사 등
경상 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7.5(수) 13:00 도청 대강당	경상남도 도민 600명명	· 유공자표창, 기념행사(양 성평등 홍보관, 사진전시, 축하공연)

기관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명)	주요내용
제주 특별 자치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1.(토) 13:00 김만덕기념관	제주특별자치 도민500명	· 기념식, 문화행사, 전시회 등
	성평등을 실천하는 한마음 축제	7.7(금) 17:00~21:00 산지천 음악분수광장	도민 300명	· 작가와의 대화, 단편여성영화 상영, 육아토크 등
세종 특별 자치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제6회 세종시 여성대회	7.3(월) 14:00 정부세종 컨벤션센터	여성단체 및 시민 등 250명	· 식전행사, 기념식, 힐링특강

세상을 바꿀 공간정보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다

참신한 아이디어 10건 선정·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지원으로 상품 개발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7월 7일 14:00, 안양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민간 개발자 10팀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아이디어* 상품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활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 아이사랑 가족행복지도, 에움길 전용 버스, 건축정보 브이알(VR) 서비스, 재해예측 구역화, 거주이전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기상 빅데이터와 전력 GIS 정보 등(참고2)

- 협약 대상자에게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 등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전반 사항을 지원한다.

- 협약 대상자는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를 희망한 70팀 중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10팀이다.

- 국토부는 이들이 개발한 시제품들을 9월 1일 개최되는 경진대회 본선을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 (대상 1) 국토부 장관 표창, 상금 천만 원 (최우수상 1) 국토부 장관 표창, 상금 8백만 원 (우수상 1) 국토부 장관 표창, 상금 5백만 원 등 총 상금 4천만 원

- 또한, 개발된 제품은 각종 정부 행사 전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마켓 입점 등 판로를 지원하여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방침이다.

<참고> 국가공간정보 활용 협약 대상자 지원 계획>



□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참신하고 사업화가 기대되는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다.

○ ‘16년에는 보행약자 길 찾기 서비스 등 5개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건물 통합정보와 상점정보를 융·복합하여 수시로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 출시가 조만간 계획 중에 있다.

<참고> 2016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개발된 시제품 개요

바이패스 (BYPASS)	전지전능	어데고	헬프어스 (Help Us)	건물정보 2.5D
보행약자 전용 내비게이션	농사정보 제공	위치/경로 공유 + 채팅	범죄 신고/상담 + 기부 나눔	수시로 변하는 상권정보 서비스

□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탄생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는 경진대회를 통한 이벤트성 지원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한 기반으로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융·복합 경진대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경진대회 사전준비 : '17.3월 중

- 경진대회 심사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산·학·연 T/F 구성

☐ 공간정보 융·복합 설명회 개최 : '17.4월[~5월]

- 공간정보 활용분야(산업 및 대학교 등) 대상 융·복합 설명회 개최

* 서울·경기-서울시립대(4.13), 전라권-전주비전대(4.19), 경상권-부경대(4.20),
대학 특강-전북대(5.11)

☐ 경진대회 참가접수 : '17.5월[~6월]

* 총 70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아이디어 접수

☐ 1·2차 서류심사 : '17.6월

- 산·학·연 전문가 T/F를 통해 최종 경진대회 경선작 10팀 선정

☐ 최종 선정자 대상 공간정보 활용 MOU체결 : '17.7.7.

- 경진대회 최종 참가자와 공간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MOU체결

☐ 서류심사 통과자 인큐베이팅 착수 : '17.6월 ~ 8월

- 전문 개발자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데이터 가공 기술지원 등

☐ 경진대회 개최(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중 개최) : '17.9.1.

- 개발환경 지원으로 개발된 시제품 시연 및 시상(심사위원 및 현장 시연을 통한 일반 관람객 평가 합산)

☐ **공간정보 융·복합 최우수 선발자 간담회** : '17. 9월 중순

- 법률상담, 개발 플랫폼 지원 등 실제 시장 출시를 위한 사업화 상담

☐ **수상작 홍보 및 오픈마켓 입점 등 유통지원** : '17. 10월 ~

참고 2

MOU 체결 대상 아이디어 팀 개요

순번	팀명	콘텐츠(아이템)명	분야
1	GD&AW	아이사랑 가족행복지도	육아 (육아관련 위치정보)
2	역마살	에움길 전용 버스 (온도니르)	교통 (교통소외지역 해소)
3	샐러드파이	공공데이터와 GIS정보를 결합한 “건축정보VR 서비스”	부동산, 건축, IT(VR/AR)
4	싱크워터	공간정보 융복합으로 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서비스	재난·재해
5	공간저울	라이프스타일 기반 거주이전 의사결정지원서비스	부동산, SNS
6	엑스엔 유틸리티	기상 빅데이터와 전력 GIS정보와의 만남	기상, 전력
7	공조 (미니어스 & 제빈치)	사용자 감정기반 인공지능 네비게이션 봇*(챗봇+로봇) 시스템 개발	감정+공간정보, 감정지도
8	H2O (HELP HANDICAP ORGANIZATION)	비콘을 이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음성 안내 서비스	장애인 복지
9	아리아리	SCOUT 웹/앱 서비스	여성 안심귀가
10	포토네비	포토네비	사진, 긴급구조, SNS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7.7 대전서 해양수산 빅데이터 공동 활용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동재)은 수산·해운·물류 등 해양수산 분야 공공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7일(금)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분야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그동안 네이버, 골프존, 삼영이엔씨 등 민간 기업들과 해양정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독도 해저 가상영상(네이버)’, ‘울릉도 스크린 바다골프(골프존)’, ‘3차원 선박 내비게이션(삼영이엔씨)’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시범 제공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산업 부문에서의 해양수산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하는 해도 등 책자를 복제해서 사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복제 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지원 제공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활용 및 민간 기술 융합, 산업화 등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양공간정보 및 수산·항만·물류 분야 450여 종의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양측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민간 기업들이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정보 산업화를 위해 구축한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하고 주 사용자가 될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해양정보를 즉시 산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고, 산업화에 적용된 사례 등을 소개하는 누리집 제작(‘17.10~11월 경 정식 운영 예정)

해양수산부는 본 간담회 이외에도 올해 6월부터 추진해 온 ‘해양수산 빅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올해 말까지 조기 완료하고, 2020년까지 약 150억 원을 투입하여 관련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정보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가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 및 조직 확충 등 추진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 분야의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이트 구축 예정(‘~17.12)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와 민간기술 융합을 통해 첨단 항해장비, 가상체험, 해양교육·문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화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해양수산 빅데이터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내용

□ 행사개요

- 참석인원: 원장님, 정보화담당관, 해양생태과장, 민간 산업계 등 50여명
- 일시/장소: 7월 7일(금) 14~17시/대전 호텔인터시티 5층 토파즈홀

□ 주요내용

- 3차원 항해장비, 해양레저용 어플, 해저VR 등 새로운 민간 서비스제품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안내, 민간 요구사항 수렴
- ※ 해양정보 서비스업 회원등록, 복제수수료 감면 등 지원사항, 해양수산 정보 통합, 산업용 데이터셋 제작 등 해양정보 산업화 기반 인프라 소개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7.7(금)	11:30~13:00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환경정책관, 정보화담당관, 해양생태과장 오찬(세종)	국립해양조사원장 등 12명
	13:00~14:00	세종→대전 이동	
	14:00~14:30	원장님, 참석자 및 각 기업별 인사, 주요 관심사항 소개	* 임차료, 자문료 등 행사부대 비용은 산업화 사업에서 지출
	14:30~15:30	산업화 정책 소개(안장현主) 및 토론	
	15:30~16:30	서비스 인프라 소개(수행사) 및 토론	
	16:30~17:00	자문위원 의견, 종합토론, 마무리	

□ 향후계획

- 2차 민·관 간담회: '17년 11월

□ 참석대상

분야	업체명
포털지도	DaumKakao
포털지도, VR	Naver
항해장비	(주)삼영이엔씨
항해장비	금호마린테크(주)
항해장비	해양오릭스(주)
날씨앱 서비스	해양기상기술
낚시 인터넷 서비스	(주)인터버드
해로드앱 서비스	아바드주식회사
해도 판매	한국해양개발
해양수산정보 활용	케이엘넷
해양정보 컨설팅	전략해양
해양조사업계	선영종합엔지니어링
	지오시스템리서치
	유에스티21
관계기관	해양조사협회
전문가 자문위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오종민 (산업화)
	NH공사 이종용 (산업화)
	한밭대학교 김승민 (서비스 디자인)

* 각 기업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